

미국 신진 디자이너의 작품 특성에 관한 연구
- 중국계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

한 자 영
국제대학 패션계열

Characteristics of New Premier
American Fashion Designers' work
- Focused on Descendants of Chinese Immigrants -

Han Chayoung
Kookje College

Abstract

Philp Lim, Alexander Wang and Jason Wu are the American fashion designers as descendants of Chinese immigrants. They had the honor of being given the Swarovski Awards- new premier fashion designer- from CFDA(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America).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ollection, and offered the informations for Korean designers entering the American market. This research categorized characteristics of these designers'- whole characteristics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tails such as formal characteristics, optimistic characteristics, tactile characteristics-, and fashion styles from the S/S season of 2009 to the F/W season of 2010 were analyzed. These young and male designers being received attention as a star, didn't make creative art pieces. But they made pragmatic, commercial, and con-temporary works in whole characteristics and succeeded in their fashion business like other American designers. On the other hand they oriented high fashion clearly in terms of the detail characteristics - their own accent color, tiny change in variety, unique material, delicate ornaments. Therefore Lim created chic and stylish, Wang made a sporty street style, Wu made a luxury style with mannish and casual through work characteristics suitable for their costumer.

Key Words : American fashion designer(미국 패션 디자이너), whole characteristics(전체특성), characteristics of details(부분적 특성)

1. 서론

최근 국내 우수한 디자이너들은 글로벌 트렌드의 영향과 한계에 다다른 국내 패션시장의 돌파구로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 패션시장 구조와 달리 디자이너는 창작에 몰두하고 유통 상업적 측면은 기업이 알아서 진행하는 해외 패션 시장 형태가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해외진출을 선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¹⁾ 그러나 서울 컬렉션 참가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연구를 한 한자영·이수진²⁾은 해외시장에 대한 목표나 기대를 지닌 디자이너들조차도 각자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되는 막연한 시장만을 겨냥하고 있었을 뿐 경쟁 디자이너 등 철저한 목표시장을 지향하는 정보 수집도 미비했다고 하여 국내 디자이너들에게 해외 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해외 디자이너 및 그들의 패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디자이너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일조하고자 하며 특히 최근 진출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거대한 시장을 지닌 미국 패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008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세계 패션 중심지 뉴욕에서 한국계 디자이너들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³⁾ 신문은 '한국의 기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뉴욕의 한국계 디자이너들을 소개하면서 한국 디자이너들이 미래 미국 패션계의 간판 스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한국계 디자이너로 리처드 채와 두리 정을 꼽았다. 이와 함께 미국 패션 디자이너의 등용문으로 알려진 젠 아트(Gen Art)가 최근 선정된 디자이너 8명 중 4명은 한국인이나 한국계 미국인이며, 뉴욕의 명문 패션스쿨 파슨스에는 패션디자인 학부과정 등록생 중 29%가 한국 출신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기사를 통해 많은 한국 패션 전문 인력들이 미국 패션 시장으로의 진입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과 앞으로 한국인들이 미국 패션시장에 대거 진입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2010년 2월 12일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디자이너들을 후원하는 행사로서 '컨셉트 코리아(concept korea)'가 개막되어 정구호(구호), 홍승환(로리엣), 김석원

·윤원정(앤디앤덱), 박춘무(데무), 정욱준(JUUN.J), 이도이(도이 파리스)의 국내 대표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뉴욕에서 전시되었다.⁴⁾ 이들 디자이너들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우수한 디자이너들 가운데 엄격한 기준과 심사에 의하여 발탁된 이들로서 최근 국내 디자이너들의 미국 진출에 대한 수요를 알 수 있다.

미국은 패션의 의미를 자국 문화의 정체성의 핵심 표상으로 구축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파리패션의 권위에 도전하여 세계 패션의 리더십을 개척해 온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서⁵⁾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디자이너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창의성보다는 실용성에 주안점을 둔 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인종이 뒤섞인 이민자들의 사회라는 특성은 미국의 강점이자 약점으로 미국 패션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배경이 되어왔기 때문에⁶⁾ 아시아권인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다. 사실 미국 패션에의 진입을 희망하는 국내 디자이너들은 미국 패션의 입장에서 보면 이질적이고 낯설은 신인들이다. 따라서 미국 내 신진디자이너이자 이민계 디자이너들에 대한 접근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개개인의 시장성을 가능하고 스타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 패션업계에서 차이나 파워를 과시하는 중국계 디자이너들이 주목되고 있으며⁷⁾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미국 디자이너이지만 이민계 특히 중국계 디자이너라는 배경을 지니고 있는 Phillip Lim, Alexander Wang과 Jason Wu를 대상으로 그들의 작품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디자이너들은 중국 이민계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대표하는 패션협회인 CFDA⁸⁾가 미국 최고의 신진디자이너에게 부여하는 Swarovski Awards의 수상자들이다. 미국 신인 디자이너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CFDA의 Swarovski Awards는, 후보로만 지명되어도 유명도가 낮은 신인들에게는 큰 영광이자 유명 디자이너로서의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하고 이 상의 수상자 대부분은 국제적인 디자이너로서 공인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내 신진디자이너로서 인정받은 디자이너들 가운데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

국제 디자이너 Phillip Lim, Alexander Wang과 Jason Wu의 작품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미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미국 내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실제 트렌드로서 미국 시장 내 수용되는 작품 표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 국내 디자이너들의 성공적인 진출에도 일조하리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미국 패션 및 미국 디자이너에 관한 이론적 배경의 자료 수집을 위해 원서 및 패션 정보지, 패션 신문이나 잡지 등의 저널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패션 정보 사이트, 각 디자이너들의 홈페이지 등의 내용을 이용하였으며 디자이너들의 작품 특성에 대한 실증 분석은, 인터넷 사이트 내 컬렉션 작품 사진 및 이에 대한 리뷰 기사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미국 패션 시장 동향 및 미국 디자이너

세계 4대 패션 컬렉션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컬렉션인 뉴욕 컬렉션은 파리와 밀라노에 비해 영향력이 저조하고 실험성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실용적이고 판매위주의 유통 지향적이라는 일반적인 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점차 미국만의 색을 살리고 있다고 평을 받는 Anna Sui, Marc Jacobs(for Louis Vuitton), Michael Kors(for Celine), Narciso Rodriguez 등의 디자이너들의 등장으로 예술성 있는 컬렉션으로 변화하면서⁹⁾ 미국 패션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Kate & Laura Molleavy(for Rodarte), Francisco Costa(for Calvin Klein), Lazaro Hernandez & McCollough(for Proenza Schouder) 등 생동감 넘치는 젊은 디자이너들은 뉴욕 패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미국은 연간 600억 달러의 의류제품을 수입하는 최대 의류소비 시장이고 한국 의류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전 세계 브랜드가 집결하여 경쟁하는 최고의 시장으로 세계화를 위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미국 패션 시장은 정보를 공급받는 등

시장조사를 위한 지역 정도였으나 현재는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진출의 장이 되고 있어¹⁰⁾ 이러한 이유로 많은 디자이너들이 진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금융폭풍이 세계 경제시장을 덮은 후 미국 패션 산업은 전례 없는 변화의 위기를 가져왔다. 2008년 미국의 실업자는 약 26억 명으로 63년 만에 최대수치를 기록했으며 의류 리테일 분야에서도 2008년 11~12월, 30,000명의 직원 삭감이 이루어졌다. 특히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모험적인 시도는 피할 것으로 보여져 소비자 반응이 검증되지 않은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는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¹¹⁾

2009년 10월 미국 상무부는 09년 3분기, 금융위기 이후 1년 반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난 2.8%의 성장을 발표함으로써 미국 경기가 불황에서 탈출했다고 선언하고 이에 따른 출구전략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은 2% 미만을 예상되고 있어 실물 경제 회복에는 별도의 사건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여전히 평균 실업률은 10%를 기록하고 있는 등 미국 패션 소비시장(retailer market)은 심각한 매출 부족이 지속될 전망이다. 모든 리테일러가 축소되었으므로 트렌드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측하고 앞서가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¹²⁾

그간 미국 패션 및 미국 디자이너들에 대한 연구는 마케팅, 비즈니스에 중점을 두고 마케팅적 시사점을 한 것¹³⁾¹⁴⁾¹⁵⁾과 트렌드 조사의 일환으로 미국 패션 특성을 고찰한 것¹⁶⁾과 뉴욕 컬렉션에 관한 것들¹⁷⁾¹⁸⁾ 그리고 개별적인 디자이너들에 대한 연구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을 조사한 것들¹⁹⁾²⁰⁾²¹⁾²²⁾²³⁾²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송수원²⁵⁾은 사회문화적 형성 인자를 통해 미국 패션과 영국패션 각각에 나타난 문화정체성을 추출해내고 이에 대한 표현 양식을 분석하였다.

그 가운데 본 연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에 관한 연구들만을 살펴본다면 랄프 로렌의 광고 전략을 조사한 박혜원의 연구²⁶⁾는 1960년대부터 2000대에 이르기까지 명품 브랜드로서 랄프 로렌의 기업화하는 과정의 제품과 광고 디자인 특성을 분석

하였고, 정은숙²⁷⁾은 1980년대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성공한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돈나 캐런의 스타일을 연구하였다. 이 두 디자이너 브랜드는 이미 오래 전에 확고한 정체성을 지닌 기업화된 브랜드가 되어 인지도가 높다.

반면 기업화된 브랜드에 영입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1990년대 루이뷔통의 마크 제이콥스에 관한 연구들로 김지영²⁸⁾의 연구는 마크 제이콥스의 루이뷔통 디자인 혁신을 중점적으로 다룬 반면 이주영²⁹⁾의 연구는 마크 제이콥스 스타일의 특성인 레트로한 경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마크제이콥스는 구찌의 톰 포드와 같이 1990년대 미국인이지만 프랑스 본사인 루이뷔통과 이태리 본사인 구찌 등 글로벌 브랜드에서 기존 브랜드의 정체성 유지와 이를 재해석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신진 디자이너로서의 길을 걸었다. 현재 그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해 있다고 해도 그들의 시작은 미국이 아닌 글로벌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미 유명해진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해당 브랜드를 새로이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기존 브랜드의 명성으로 인해 자리에 오른 순간부터 인지도를 얻게 된다.

신진 디자이너상의 수상자들은 이렇게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에 소속되어 처음부터 각광을 받은 디자이너들이 아닌 디자이너 본인의 이름을 걸고 시작한 디자이너들이다. 국내 디자이너가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자신의 디자이너 이름을 건 브랜드로 진출하는 것으로 기존 브랜드에 영입된 디자이너들의 다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이미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로서 미국에서 이름을 알린 동양계 디자이너로는 중국계 미국인 안나 수이(1991년 데뷔)와 비비안 탐 등이 있다. 안나 수이를 연구한 변미연, 이지연, 이인성³⁰⁾의 연구와 비비안 탐을 연구한 노미경, 김찬주³¹⁾의 연구, 배수정³²⁾의 연구들은 미국 내 동양계 디자이너들이 보여주는 민속풍이나 이국적 이미지 전략에 대해 주목하였다. 안나 수이는 세계 각국의 민속풍을, 비비안탐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표현하면서 미국 내에서 독특한 이미지로 성공한 동양계 디자이너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알려진 디자이너들을 연구한 앞의 연구들과 달리 최근 급부상하는 신진 디자이너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디자이너들에

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세 디자이너의 배경

필립 림이나 알렉산더 왕, 제이슨 우 이들은 각기 다른 성장배경을 지녔으나 모두 중국 이민계이면서 젊은 남자 디자이너들로서 2000년대 후반에 데뷔하여 기존 디자이너들과 구별되는 감각으로 현재 미국 패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진디자이너들이다.

이들 세 디자이너 가운데 가장 먼저 CFDA 신진 디자이너상을 수상한 필립 림은 현재 나이 37세로 가장 나이가 많으며 태국에서 태어난 캄보디아 아메리칸이라는 독특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필립의 조부모가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침략을 피해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이주하는 바람에 필립의 부모는 캄보디아 내전에 숨죽이다 태국으로 탈출을 감행해 필립 림을 태국에서 낳고 태국 난민 보호소를 전전하는 생활 끝에 미국으로 이민했다. 가난한 이민자였던 필립의 아버지는 전문적인 포커플레이어였고, 어머니는 재봉사였다. 한때 경제학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디자인에 대한 열정 때문에 카테이온 아델리(Katayone Adeli)에서 어시스턴트와 디자이너를 거쳐 10년만에 자신만의 브랜드를 런칭했다. 당시 필립 림은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 웬주(Wen Zhou)와 함께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때 둘의 나이가 모두 31살로 '3.1'을 브랜드 네임에 사용하였다. 그는 2005년 가을 첫 컬렉션에서 '스트리트 엘레강스'가 투사된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클래식하지만 어딘지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는 평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3.1 필립 림은 핫 아이템 제조기라 불리며 현재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400여 개 매장에 올해 매출 목표는 6000만 달러로 세계 곳곳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알렉산더 왕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목받는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태생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랐으며 18살에 뉴욕 파슨스에 입학했다. 이후 마크 제이콥스, 데릭 램, 그리고 미국의 보그에서 인턴십을 거치며 28살인 2007년 대학 2학년 재학 중에 첫 컬렉션을 선보이며 패션계에

입문하였다. 당시 선보인 독특한 리조트웨어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믹스매치로 스타일링 해 동시대적인 스트리트 패션을 고급스럽게 표현해 런웨이에 올려놨다’는 평을 들으며 패션 피플들의 관심을 알렉산더 왕에게 집중시켰고 이후 그에게는 ‘천재 디자이너’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알렉산더 왕의 디자인은 캐주얼한 디자인을 기본 컨셉으로 90년대 무드와 프렌치 시크, 록 그런지 등 쉽게 조화될 것 같지 않는 요소들을 패션에 녹여내어 기존 디자이너들과 차별화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2009년 높은 플랫폼 샌들 컬렉션 뿐만 아니라 티셔츠, 탱크탑 등의 세컨드 라인 T by Alexander Wang을 런칭하였다. 특히 알렉산더 왕의 단독매장은 2011년 2월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에 이어 2011년 3월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오픈되었다.

가장 최근에 CFDA 신진디자이너상을 수상한 제이슨 우는 대만에서 무역업을 하던 부모님과 함께 9살 때 캐나다로 이주하였고 이후 미국에 정착했다. 16살 때 일본 도쿄에 가서 조각을 공부하였고 프랑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다양한 문화적 감수성을 갖추었다. 특히 어려서부터 인형 옷을 디자인하거나 봉제하는 것을 취미로 삼았고 장난감 업체인 ‘Integrity Toy’의 프리랜서 인형 옷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 회사는 그가 만든 인형 옷을 ‘제이슨 우 라인’ 이후에 ‘Fashion Royalty’로 따로 이름을 붙였고 우는 이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다. 패션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한 제이슨 우는 파슨스 스쿨에 진학하였고 후에 나르시스 로드리게즈에서 인턴십을 했다. 2006년 그는 인형옷 디자인 시절에 번 돈을 가지고 첫 컬렉션을 선보이며

그의 기성복 라인을 런칭하였지만 실제로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검은 재키’로 불릴 만큼 패션 감각이 뛰어난 미셸 오바마의 선택을 받으면서이다.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식 무도회장에서 원술더의 쉬폰 드레스나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첫 공식적 유럽 순방에서 착용한 연초록의 살크 드레스 등은 그를 단숨에 스타 디자이너로 발돋움시켰고 이후 그의 사업은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상의 세 디자이너는 그 성공 과정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급부상하여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미국의 신진 디자이너들로서 해외로 진출하려는 국내 디자이너들은 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자료 수집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디자이너들의 작품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www.style.com³³⁾의 사진 자료 및 리뷰 기사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리뷰기사는 2010년 SS 컬렉션부터 2011년 FW 컬렉션까지 최근 2년간 리뷰 기사 가운데 디자이너의 작품 정체성을 두드러지게 묘사하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트렌드나 시장성을 제시하기 위한 작품 분석에 사용된 사진 자료도 마찬가지로 2010년 SS 컬렉션부터 2011년 FW 컬렉션까지 최근 2년간의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디자인이나 전체 이미지가 유사한 디자인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이용된 사진자료는 총461장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디자이너의 작품 사진 자료의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사진자료 수

	2011F	2011S	2010F	2010S	F	S	합계
Lim	41	40	39	39	80	79	159
Wang	35	36	39	40	74	76	150
Wu	37	37	40	38	77	75	152
합계	113	113	118	117	231	230	461

2. 분석 항목 및 연구 방법

의류학 영역에서 패션디자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패션 조형 요소를 분석요목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해외컬렉션과 국내 컬렉션의 패션트렌드를 비교한 박신희³⁴⁾는 주요 이미지, 형태, 특징, 장식, 색상 등으로 분석하였으며 모자와 의복의 조형성에 따른 이미지 평가를 연구한 정해선³⁵⁾은 모자종류, 의복형태, 색상, 헤어스타일, 재질, 무늬 등의 요목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 캐주얼 스타일 전개 현황 및 디자인을 분석한 박남희, 최윤미³⁶⁾는 실루엣과 아이템을 합하여 형태로, 색상과 그래픽을 합하여 색채로, 디테일과 소재, 착장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반면 조진숙, 정하경³⁷⁾은 크리스티앙 디올의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 경향을 분석하면서 아방가르드, 페미닌, 관능미, 매니시, 에스닉, 레트로, 빈티지, 히피, 캐주얼의 9가지 이미지 형용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패션 작품 특성을 분석한 앞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작품 특성을 크게 패션 이미지나 전반적인 디자이너 작품 평에 의한 전체 특성과 조형요소별 특성인 부분적인 특성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전체 특성은 디자이너별 각 컬렉션 리뷰에 표현된 전반적인 작품 이미지나 컬렉션 감상에서 두드러진 특성을 종합 분석하고, 부분적 특성은 실루엣 및 디테일, 착장법을 함께 형태적 특성으로, 색상과 문양을 함께 시각적 특성으로, 그리고 소재나 재질감들을 촉각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각 디자이너와 시즌별로 고찰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전체 특성

세 디자이너의 작품에 대한 전체 이미지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컬렉션의 리뷰 기사에 나타난 두드러진 표현들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필립 림이나 알렉산더 왕의 작품에는 상업성, 기능성, 도시적, 시크함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뉴욕 컬렉션의

대표적인 특징들로 이들 디자이너의 작품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만 제이슨 우 작품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미셸 오바마가 입었던 드레스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시그니처인 요정 느낌의 드레스가 컬렉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래서인지 테일러링이 강조된 오피꾸띠르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그러나 우의 작품도 점차 최근으로 올수록 정교한 테일러링은 그대로이나 프린세스 드레스의 비중이 줄어들고 매니쉬하거나 캐주얼한 트렌디한 감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점차 뉴욕 컬렉션의 특징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들 세 디자이너는 뉴욕에서 데뷔한 디자이너들이지만 20, 30대의 대단히 젊은 디자이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적이거나 창의적인 특성보다는 상품으로의 특성 즉 합리적 가격대의 동시대적인 디자인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실용적이라는 점에서 대중에게 어필하는 대단히 상업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작품 특성은 오히려 젊은 도시 여성들이 선호하는 세련됨과 심플함을 바탕으로 스포티한 이미지의 다양한 기능성, 스트리트 감성, 도시 여성의 터프함, 섹시함 등을 감각적으로 가미함으로써 그들이 지닌 젊음을 상업적으로 풀어내고 있었다.

필립 림의 경우 자신의 작품에 대해 'Classic with a sense of madness' 이라 표현할 정도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디자인에 부분적인 디테일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대중적이면서도 트렌디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알렉산더 왕은 패션 피플의 스타로서 자신이 지닌 젊음을 무기로 Wang-ettes라는 추종자들까지 만들어내며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스트리트 스타일을 제안함으로써 철저히 고객지향적인 디자인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수상한 제이슨 우의 경우는 미셸 오바마 덕분에 자신을 혜성처럼 떠오르게 한 프린세스 드레스로 상업적 성공을 이뤄낸 뒤 최근 들어 그러한 스타일과 대중적인 트렌디한 스타일을 적절히 믹스해가며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다.

<표 2> 세 디자이너 작품의 전체 특성

디자이너	해당시즌	리뷰에 나타난 컬렉션 특성 표현	전체 특성
Lim	2011F	chic women, terribly cool, remarkably stylish, functional looking athletic, girls on bike, utilitarian elements, urbanite, girls on a bike	기능성, 세련됨, 지적, 도시적
	2011S	backless, side-less, bottomless garment that came together to form a full look, puzzle-piece concept, familiar clean sportswear, nicer price	기능성, 다양성, 상업성, 스포티
	2010F	chic pragmatist, 70's new simplicity,	세련됨, 실용성, 단순함
	2010S	한가지 테마에 집중하지 않음: giving a reason to shop, to sell sell sell	다양성, 상업성
Wang	2011F	sexy, tough, cool-girl, decadence and luxury, urban street, edge-tough-chic, snow-bunny (스키장미녀), hybrid garment	섹시함, 방탕함, 스트리트 감성, 세련됨. 기능성
	2011S	optimistic, pure, 90's street fashion style, 대중적인 해석과 합리적인 가격	순수함, 해체적, 스트리트 감성, 상업성
	2010F	creative chops, in high fashion but accessible to more than just one percent, deconstructed, sophisticated,	창의적 해체, 대중적, 소피스티케이티드
	2010S	all American sports, timeless and classic-investment piece, football,	아메리칸 스포티브, 활동성, 상업성
Wu	2011F	baroque meets sportswear, absence of sex, androgynous, tailoring의 강조, lace-dedicated	장식적, 앤드로지너스, 스포티, 정교함
	2011S	push into tailoring, sex appeal, see-through, 화려한 color와 mixed print	시스루, 섹시함, 페미닌, 화려함, 테일러링
	2010F	clean, spare classics a big menswear, outerwear	매니쉬, 클래식
	2010S	casual pieces of American sportawear, super luxe fabrics, evening portion back in earnest mode(princess dress)	스포티, 캐주얼, 럭셔리, 오피꾸띠르 감각(프린세스 이미지)

2. 부분적 특성

1) 형태적 특성

세 디자이너 작품의 실루엣 및 디테일과 착장법 등의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에서 보면 필립 림 작품의 실루엣은 F시즌은 박시하거나 루즈한 핏의 상의에 피트한 하의의 Y자형의 실루엣이 S시즌은 루즈한 시스 실루엣이 주를 이루고 있어 트렌디하면서도 누구나 편히 입을 수 있는 실루

엣 제안으로 클래식과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의 디자인철학을 볼 수 있다. 그의 작품 가운데 트라페즈 실루엣이나 프린세스 실루엣조차도 캐주얼하게 표현되어 기능적이다. 2011년 F시즌 네크라인 부분에 잡은 뽀뽀한 느낌의 주름이나 칼라 블로킹한 의상들, 레이어드한 듯 착시를 일으키는 에이프런 형태의 의상, 2010년 F시즌 크로스된 서스펜더가 달린 플레어 스커트 등은 그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언급한 'Classic with a sense of madness'를 이해

할 수 있는 특징들이다. 그는 이렇게 세부적인 디테일에 트렌디한 변화를 줌으로써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디자인을 하이패션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알렉산더 왕의 작품은 박시한 실루엣이거나 박시한 상의에 핏트한 하의, 그리고 아주 핏트한 실루엣이 우세하여 실루엣 자체에 젊고 반항기 있는 터프한 스트리트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특히 2010년 F 시즌의 수트를 해체하여 재구성한 실루엣은 남성적인 느낌의 테일러드 수트를 여성적인 섹시한 느낌의 피티드 실루엣으로 풀어냄으로써 그의 추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섹시함을 표현하고 있다. 당시 왕의 목표는 보다 정교하고 덜 스트리트적이고 예의 바름이었지만 해체된 수트에서 드러나는 어깨나 허리 와 두꺼운 골지 니트의 레그워머는 예의바른 사무실 드레스 코드와는 거리가 먼 그의 고객취향에 적합한 것들이다.

제이슨 우의 실루엣 분포를 보면 필립 림이나 알

렉산더 왕의 작품 대부분이 두 개 정도의 중심 실루엣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2011년 두 시즌과 2010년 F시즌의 작품은 여러 실루엣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0년 S시즌은 프린세스 실루엣의 우세를 보이고 있어 제이슨 우가 성공하게 된 작품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트렌디한 실루엣과 드레스 유형의 작품을 함께 발표하면서 다른 두 디자이너들에 비해 다양한 실루엣을 선보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제이슨우가 점차 캐주얼 혹은 매니시한 아이템이나 디테일을 이용해 트렌디한 요소들을 접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의 주 고객층이 원하는 정교하고 섬세하며 깔끔하게 재단되고 마무리된 의상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큰 리본장식이나 보석 느낌의 색색의 돌들, 자수, 양소매의 넓은 레이스 장식들은 오히려 지적 감각을 보여주는 디테일들로서 그가 자신의 고객층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세 디자이너 작품의 형태적 특성

디자이너	2011F	2011S	2010F	2010S	디테일 및 착장 특성
Lim	 (59%)	 (50%)	 (51%)	 (59%)	  (2011F) (2011S)  (2010F)    (2010F)  (2010S)
	 (34%)	 (30%)	 (18%)	 (23%)	
	 (7%)	 (20%)	 (31%)	 (18%)	

<표 3> 계속

디자이너	2011F	2011S	2010F	2010S	디테일 및 착장 특성
Wang	 <p>(54%) (26%) (20%)</p>	 <p>(43%) (33%) (24%)</p>	 <p>(41%) (41%) (18%)</p>	 <p>(38%) (20%) (각 15%) (15%)</p>	 <p>(2011F) (2010F) (2011S) (2010S)</p>
Wu	 <p>(32%) (24%) (각 14%) (각 8%)</p>	 <p>(32%) (30%) (20%) (11%) (7%)</p>	 <p>(각 27%) (15%) (7%) (24%)</p>	 <p>(72%) (19%) (9%)</p>	 <p>(2011F) (2011S) (2010F) (2010S)</p>

2) 시각적 특성

<표 4>는 각 디자이너의 작품에 나타난 색상 및 주로 사용한 문양인 시각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F시즌 칼라는 세 디자이너 모두 접근이 쉬운 실용적인 작품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블랙 앤 화이트, 그레이, 베이지 등의 mid 톤의 basic한 군이 주로 사용되어졌다. 액센트 칼라의 경우 디자이너의 테마와 컨셉에 따라 각기 달리 사용되었다. 필립 림의 경우는 2011년 칼라블로킹의 색상 코디 컨셉에 따라 레드색상의 래글런 소매가 달린 블루 티셔츠, 블루원피스 등이 액센트 칼라로 사용되어졌고, 특히 선명한 그린 색상은 예지 있게 표현되었다. 2010년의 경우는 70년대 복고풍을 럭셔리하게 표현하고자 반짝거리는 골드나, 보라색, 핑크 등이 액센트 칼라로 사용되었다. 제이슨 우는 페미닌한 그의 의상에 걸맞는 다채롭고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두 디자이너들과는 다르게 알렉산더 왕은 블랙 색상을 주칼라로 하여 섹시하며 거친 그의 고객들 취향에 맞는 색상을 사용하였다. 알렉산더 왕은 특이하게 액센트 칼라가 아예 없거나 벨벳소재로 블루나 레드, 핑크 등의 칼라가 눈에 띄지 않게 표현되어 거칠고 도시적인 섹시한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작품 정체성을 더욱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었다.

S시즌의 주요 칼라는 베이지, 그레이, 카키, 브라운 등으로 F시즌보다는 밝고 화사한 느낌의 색상이 라이트한 톤이나 페일한 톤으로 사용되어졌다. F 시즌에 비교한다면 단연 화이트 색상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제이슨 우의 작품은 핑크 색상도 많은 편이었다. 아울러 F 시즌에 비해 주요 색상 면에서 디자이너별 각 시즌의 테마와 관련된 색상 특색이 나타났다. 필립 림은 2011은 선명한 sky blue 색상을, 2010년은 레드나 카키 빛깔의 그린에 눈에 띄게 사용함으로써 한두 가지의 액센트 칼라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대신 나머지는 누트럴한 색상의 미드톤으로 일관되게 선보이고 있었다. 반면 알렉산더 왕은 2011년 S시즌은 화이트 일색에 민트, 파스텔 그린, 산뜻한 옅은 핑크 등의 색상이 몇몇 의상에만 사용되었고 2010년 S시즌은 카키나 옅은 브라운 색사용이 두드러진 가운데 레드 칼라의 문양이나 블루진 등의 색상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제이슨 우는 요정 느낌의 의상에는 밝은 톤의 색상이 사용되면서 동시에 다양한 액센트 칼라가 강조되어 사용되어 페미닌하고 럭셔리한 왕의 작품 특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필립 림과 알렉산더 왕은 액센트 칼라의 비중을 극히 적게 하였고 특히 알렉산더 왕은 블랙이나 화이트 색상 일색으로 색상 변화의 폭은 적으나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 디자이너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다.

작품들에 사용된 주요 문양은 이들 디자이너 작품들이 하이패션임을 증명하듯이 독특한 영감을 사용하거나 수작업을 통해 정교하게 고안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다. 필립 림의 2011년 F 시즌의 야쿠자 문양, 2011년 S시즌의 산티 실크문양, 알렉산더 왕의 2011년 시즌의 추상문양 등은 디자이너 브랜드의

<표 4> 세 디자이너 작품의 시각적 특성

	2011F			2010F		
	Lim	Wang	Wu	Lim	Wang	Wu
main color						

<표 4> 계속

	2011F			2010F		
	Lim	Wang	Wu	Lim	Wang	Wu
accent color						
key pattern						
	2011S			2010S		
	Lim	Wang	Wu	Lim	Wang	Wu
main color						
accent color						
key pattern						

창의성을 드러내고 있다. 제이슨 우 작품에 표현된 화려한 꽃문양의 자수 및 꽃잎이 날릴 듯한 정교한 레이스 등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테마 이미지를 위해 사용한 정교하고 화려한 문양들이다. 아울러 필립 림의 2010년 F시즌의 동물문양이나 알렉산더 왕의 스트라이프, 기하학 문양 등은 각 디자이너가 자신의 고유 브랜드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양들로서 필립 림의 문양은 시크하고 도회적인 페미닌함을 알렉산더 왕이 사용한 문양은 거칠고 강한 도시 여성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3) 촉각적 특성

촉각적 특성은 소재나 질감에 의한 작품 특성으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사진이기 때문에 외관상의 재질감 표현은 물론 리뷰기사에 나타난 소재 설명을 종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표5>와 같다.

각 컬렉션에 사용된 소재들은 하이패션답게 럭셔리하고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실크, 가죽, 오간자, 퍼, 니트 등의 다양한 소재들이 사용되었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디자이너가 각 시즌 컨셉에 맞게 개발한 신소재들이었다. 이들은 외관상 평범해 보이는 스타일을 기능적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필립 림의 신개념 수트에 사

<표 5> 세 디자이너 작품의 촉각적 특성

	2011F	2010F	2011S	2010S
Lim	silk, nylon, thick napa leather, twill, jersey, stiff material of pleats, futuristic fabrics 	shaved rabbit fur, shearling, suede, heavy silk, boucle, gold sequin	leather, see-through, organza, lace, tulle, silk,	machine-washable light, string collage with panels of knife pleats, sequin, crocodile jacquard, knit
Wang	heavy ribbed knit, fox fur, fluffy mink, padding, glitter jean, satin, hand knit+leather 혹은 angora +satin의 mismatched fabrics 	flannel, velvet, chenille, ribbed knit, lace, sheer, leather	stiff canvas, 실버 단열재인 tyvek(투습방수재)같은 재질, loose한 knit top, limp한 소재, crepe,	denim, khaki, canvas, leather, nylon, knit, elastic한 소재
Wu	wool flannel, wide strips of lace(cut-up lace),gorgeous, embroidered look like print, feathered, metallic sequins and 금속조각, 다채로운 돌 장식물,	cashmere, mohair, plaid, crisp, shantung silk, burn print, satin, Chantilly lace, feather trap, tulle, plume-print silk tulle, feather,	striped knit, techo twill(silky), see through, satin, colorful crystals, 꽃잎같은 bulky한 소재 	tweed, denim silk, faille, the blushing pink feather 등 모든 종류의 매우 럭셔리한 직물

용된 워셔블 소재라든가 알렉산더 왕 컬렉션의 가죽과 퍼(fur), 퍼(fur)와 새틴(satin)이 하나의 원단으로 mismatched된 소재, 그리고 제이슨 우의 양소매에 달린 컷업 레이스, 다채로운 금속이나 돌장식 등은 디자이너 브랜드 고유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색다른 촉각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촉각적 특징은 대중들에게 접근이 어려운 과장된 디자인이 아닌 충분히 구매가능한 상업적인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젊고 감각적인 창의적인 디자이너의 작품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미국내 신진디자이너로서 인정받은 디자이너들 가운데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계 디자이너 Philip Lim, Alexander Wang과 Jason Wu 세 디자이너의 작품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미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각 디자이너의 성장배경은 물론 각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 특성을 분석하였다. 작품특성은 크게 패션 이미지나 전반적인 디자이너 작품 평에 의한 전체 특성과 실루엣과 디테일, 착장법의 형태적 특성, 색상과 문양의 시각적 특성, 소재와 재질감의 촉각적 특성들을 종합한 부분적인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내 신진디자이너인 이들 세 디자이너는 모두 20대나 30대 안팎의 젊은 남자 디자이너들이다. 그들은 상업적인 미국패션 시장에 스스로가 스타로서 주목을 받고 셀러브리티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거나 예술적인 작품보다는 동시대적이고 대중적인 상품으로서의 작품을 선보이며 성공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작품에는 상업성, 실용성, 기능성, 도시적 시크함과 세련됨, 심플함, 스포티, 스트리트 감성, 섹시함, 정교함 등이 전체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이들이 미국 패션의 중심에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세 디자이너 작품의 부분적 특성 가운데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면, 림은 클래식한 실루엣을, 왕은

박시함과 피트함이 어우러지는 실루엣을, 우는 프린세스 실루엣이 두드러지면서도 가장 다양한 실루엣을 선보이고 있어 세 디자이너 모두 자신의 주고객층을 지향하고 있었다. 반면 각 디자이너의 창의성 및 개성을 보여주는 단품 아이템, 디테일의 정교한 변화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특성은 베이직한 칼라를 적절히 믹스하여 실용적이고 기능적이라는 점에서 또다시 고객지향적이었으며 시즌별 디자이너 고유의 액센트 칼라를 사용하고 차별화를 꾀하고 있었다. 마지막 촉각적 특성으로는 전반적으로 하이패션다운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하는 가운데 각 디자이너만의 독특한 소재의 적용, 섬세한 소재 장식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부분적인 특징은 이들 디자이너들의 철학과 시즌 컨셉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하이패션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이들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은 젊은 도시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접근이 용이한 전체 특성을 통해 미국적인 실용성과 상업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이들 디자이너는 각자의 패션 철학과 컨셉을 고객의 취향에 적합한 형태적, 시각적, 촉각적인 부분적 특성을 통해 필립 림은 지적이면서 스타일리쉬한 스타일을, 알렉산더 왕은 거칠고 섹시하며 스포티한 스트리트 스타일을, 제이슨 우는 럭셔리한 요소를 캐주얼이나 매니쉬한 스타일로 풀어서 표현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디자이너들에게 유사한 조건의 미국 신진디자이너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지니며 후속연구로 미국의 여타 디자이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국내 디자이너들의 성공적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1) “Branded Design Award”, (2009), 삼성디자인넷, 마케팅리포트, 자료검색일 2010. 2. 14,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2) 한자영, 이수진(2008), “서울컬렉션의 시장 부합 요소와 시장지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컬렉션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2(4), pp.23-24.
- 3) “미국 패션, 한국계가 이끈다.”, (2008. 1. 24), *패션저널* 에서 재인용. , 자료검색일 2009. 12. 29, 자료출처 <http://www.okfashion.co.kr>
- 4) “한국패션 뉴욕서 야심찬 데뷔.”, *이데일리*, 자료 검색일 2010. 2. 14. 자료출처 <http://edaily.co.kr>.
- 5) 송수원(2008), “영국·미국 패션의 문화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
- 6) 송수원, op.cit. p.201.
- 7) “패션업계에 부는 '차이나 파워'”, (2011, 3. 8), *머니투데이*, 자료검색일 2011. 4. 8, 자료출처 <http://www.mt.co.kr>
- 8) 자료검색일 2009. 10. 22.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 <http://www.cfda.com>
CFDA(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America)는 미국 내 액세서리를 포함한 패션업계 350명이 넘는 디자이너들이 구성원인 비영리 협회로서 1962년 미국예술과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패션 디자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1년부터 시작된 CFDA Fashion Awards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디자이너 가운데 미국 패션에 뛰어난 공적을 가려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으로 수상 디자이너들은 국제적인 디자이너로 공인받는다. 이를 주최하는 협회는 1986년 이래로 Perry Ellis에 의해 설립된 Swarovski Awards(for Womenswear, Menswear, Accessory Design-신진디자이너)를 통해 미국 패션 산업의 미래 디자이너들의 발전과 양육을 맡고 있다.
- 9) 김수민(2007), “SFAA·서울컬렉션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신수연, 조정아(2009), “한국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미국 진출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3(1), pp.23-24.
- 11) "Smart strategy in tough time-불황기 패션비즈니스 전략", (2009)., 삼성디자인넷, 마케팅리포트. 자료검색일 2010. 2. 21,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12) 이영선(2009), “금융위기 1년 이후 미국 시장 상황과 대응전략 '2010년 미국 섬유시장 진출 설명회'”, (2009.12. 8),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료검색일. 2010. 1. 22, 자료출처 <http://www.kofoti.or.kr>.
- 13) 박혜원(2003), “인터넷 광고를 통한 랄프 로렌의 브랜드 전략 및 디자인 특성”, *패션비즈니스* 6(4), pp.125-140.
- 14) 신수연, 조정아(2009), “한국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 미국 진출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3(1), pp.22-32.
- 15) 백영하, 박재옥(2008), “한국 의류산업의 대미(對美) 수출 현황과 소심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32(3), pp.462-473.
- 16) 하지수(2002), “미국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기능주의”, *한국의류학회지*, 26(9/10), pp.1455-1466.
- 17) 추미경, 김혜경(2009), “뉴욕컬렉션에 나타난 밀리터리룩 디자인 분석”,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9(3), pp.31-48.
- 18) 권혜숙(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무채색과 유채색 코디네이션 특성-파리, 밀란, 뉴욕, 런던 컬렉션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12(4),pp.73-87.
- 19) 정은숙(1995). “돈나 카란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26. pp.265-278.
- 20) 노미경, 김찬주(2008), “비비안 탐의 디자인에 나타난 민속풍에 관한 연구”, *복식*, 58(6), pp.145-157.
- 21) 변미연, 이지은, 이인성(2007), "안나수이 컬렉션에 나타난 에스닉 스타일에 관한 연구", *복식 문화연구*, 15(1), pp.127-136.
- 22) 이주영(2003), "마크 제이콥스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레트로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배수정(2009), "한국 패션 명품 브랜드 전략을

- 위한 비비안탐 컬렉션의 디자인 특성 분석", *복식*, 59(8), pp.82-96.
- 24) 정성혜(1990), "미국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Claire McCadell, Calvin Klein, Ralph Lauren, Donna Karan을 중심으로", *복식*, 15, pp.217-231.
- 25) 송수원, op.cit., p.201.
- 26) 박혜원, op.cit., pp.125-140.
- 27) 정은숙, op.cit., pp.265-278.
- 28) 김지영(2009), "루이비통 디자인 혁신의 원동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 17(4), pp.691-708.
- 29) 이주영. op.cit.
- 30) 변미연, 이지은, 이인성, op.cit., pp.127-136.
- 31) 노미경, 김찬주, op.cit., pp.145-157.
- 32) 배수정, op.cit., pp.82-96.
- 33) 자료검색일 2011. 3. 1-2011. 3. 5 자료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review> ,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
- 34) 박신희(2000), "1990년대 해외컬렉션과 국내 컬렉션의 패션트렌드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5) 정해선, 정수진(2008),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모자와 패션 이미지의 디자인 특성 분석", *한국 의상디자인학회지*, 10(1), pp.55-68.
- 36) 박남희, 최윤미(2005), 국내 캐주얼 스타일 전개 현황 및 디자인 분석(1보), *한국의류학회지*, 27(9/10), pp.1253-1264.
- 37) 조진숙, 정하경(2007),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디자인 경향 분석-2003~2005년 컬렉션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5(5), pp.825-837.

접수일(2011년 3월 10일),
수정일(1차 : 2011년 4월 29일),
게재확정일(2011년 5월 2일)